

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12A -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수난 II: 로마인의 심문, 십자가 처형, 그리고 죽음

마태복음 12a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수난에 대한 두 번째 강의인 이번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로마 당국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유다의 자살로 끝나는 비참한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비교하여 몇 가지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은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재판 이야기의 연장으로 시작하는데, 이 재판 이야기는 26장 69절부터 75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7장 1절과 2절 이후, 주제는 27장 3절부터 8절까지의 유다의 자살 이야기로 전환되는데, 마태는 이를 27장 9절과 10절의 예언의 성취로 간주합니다.

마태복음 수난 이야기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마태의 서사 패턴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주요 이야기 속에 조연 인물과 쟁점들을 엮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연 인물과 쟁점들 중 일부는 26장 6절에서 13절, 26장 20절에서 35절, 그리고 27장 3절에서 10절과 같은 구절들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수난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27장 9절과 10절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적이고 전형적인 구약 해석이 성취 공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그의 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는 스가랴 11장 7절에서 도살당할 운명에 처한 목자를 예수님에 대응시키고,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주님의 집에서 토기장자에게 던져진 은 서른 개를 유다가 성전에 던져 대체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에서 사용했던 돈에 대응시키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스가랴에 맞춰 이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예견하는 패턴을 찾기 위해 선지서를 읽습니다.

이제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방황했던 후(26:75)에 보인 회개와 유다가 궁극적인 배신 행위를 저지른 후 보인 회개를 비교하고 대조해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두

행위 모두 비열한 것이었지만, 베드로의 회개는 유다의 회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와 교회에서 그의 특별한 직분을 회복합니다(요한복음 28:18-20). 요한복음 21:15 이하를 비교해 보세요. 초기 교회에서 베드로의 두드러진 사역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27장 3절에서 회개를 뜻하는 다른 그리스어 단어인 메타멜로마이(metamelomai)가 사용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단어는 회개 를 뜻하는 메타노이아(metanoia)나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에오 (metanoeo)와는 다릅니다.

죄를 인정했고 피 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거나 제자들과 다시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살은 회개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의 징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회개는 열매로 묘사된 행위로 나타납니다. 3장 8절부터 10장 7절, 16절부터 20절, 그리고 13장 38절부터 40절과 같은 구절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다는 자살로 기억되는데, 이는 출애굽기 21장 23절의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과 요한복음 6장 70절, 17장 12절과 같은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유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잃어버린 존재였기에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유다는 때때로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 유대인 전체 의 전형적인 심각한 실수로 여겨집니다 .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것처럼 , 유다 역시 그 이후 시대의 유대 민족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유다는 그 시대나 다른 시대의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했습니다. 열한 제자는 메시아를 위한 사역에 복귀하여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따르면, 교회가 빠르게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로 변모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신자들은 결코 유대인 신앙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의 재판, 즉 빌라도 앞에서의 심문(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의 재판은 두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심문하는 과정(27장 11절과 26장 12, 14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유월절에 관례적으로 죄수가 풀려나는 것과 바라바가 석방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27장 15절과 16절)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빌라도가 27:17부터 20까지, 그리고 27:21에서 군중에게 누구를 석방해야 할지 묻는 장면이 두 번 반복되고, 이어서 빌라도가 27:23, 24, 25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두 번이나 주장합니다. 이어서 27:26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넘겨줍니다. 빌라도와 군중 외에도 이 짧은 이야기에는 두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빌라도의 아내(27:19)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27:12)입니다.

안타깝게도 군중과 빌라도 모두 빌라도의 아내가 아닌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빌라도는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안타까운 면을 드러냅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꺼이 연루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5절에는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5절은 마태복음 23장과 함께 노골적인 반유대주의로 자주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가 빌라도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로마인들을 무죄로, 유대인들을 고발, 혹은 유죄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힐의 주석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빌라도를 묘사하는 방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불안정하고 불의한 인물로 묘사하는 다른 고대 자료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임을 알지만, 정의의 오류를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라바 대신 예수가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무리의 뜻에 순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황제로부터 유대에서 재판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심할 정도로 상징적인 손 씻기는 위선적이고 부당합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은 무리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군중이 결정을 내렸습니까? 빌라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통치자로 비취집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그는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내버려 둘 용기조차 없습니다. 데이비스와 엘리슨은 빌라도라는 직함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합니다. 총독은 통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공유 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군중이 예수님의 피를 자신과 그들의 후손에게 흘렸다는 유명한 피의 비방은 어떻습니까? 이 구절은 유대인들을 영원히 죄인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자, 군중은 자신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 역사에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비열한 살인자로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자주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한 베어의 논평에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해석은 표면적으로 명백히 거짓입니다. 교회의 설립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메시아인 예수의 정체성을 두고 비기독교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던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유대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피의 비방을 부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마태복음 27장 25절을 허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베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구절의 의미에 대한 이전의 오류에 더해 그 구절의 역사성에 대한 오류를 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표면적으로 이 본문은 빌라도 앞에 선 사람들과 그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지, 당시나 다른 어떤 시대의 유대인 전체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발언은 신중하고 논리적인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순간의 열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무리의 성급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치 열두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용서받지 못할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소심함과 손을 씻는다는 허황된 모습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9장 13절과 21장 31절 같은 구절에서 세리와 창녀 같은 악명 높은 자들이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아간 무리 가운데는 이러한 죄인들이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며, 마태의 신학에 따르면 그러한 죄인들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로 여겨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엄하게 비판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마태복음 27장 25절의 유혈 모독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27장 20절에서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군중을 설득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45절과 23장 36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악한 세대였다면, 그것은 주로 그들의 지도자들이 특히 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부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27장 25절에 나오는 군중의 불행한 진술과, 따라서 빌라도가 군중의 격앙된 요구에 무분별하게 순응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갈등이라는 미티안 주제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더 심오한 의미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새 언약을 시작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데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많은 암시와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 이후, 마침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약성경의 몇 가지 암시, 다시 반유대주의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처형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합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야기는 그 끔찍한 과정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나열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7:27-31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동으로 시작하고, 27:32 에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 27:33에서 골고다에 도착하고, 27:34에서 포도주를 권하고, 27:35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은 구절에서 그의 옷을 두고 도박을 하고, 27:36에서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은 27:38-44에서 예수님의 양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혁명가들에 대한 언급으로 구성된 포함입니다 . 여기서 주제는 조롱이며, 27:39-40에서는 구경꾼들이, 27:41-43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27:44에서는 혁명가들이 직접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세 번 유혹을 받으셨듯이, 여기서도 세 번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유혹과 조롱은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귀와 예수님을 조롱하는 여러 자들은 고통 없이 다스리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지만,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의 조롱은 특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한 세대 안에 파괴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않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실, 모든 조롱은 결국 진실임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매우 기이하게도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복음 전파자들이었습니다. 27장 27-31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차려입고 경의를 표하는 척하는 군인들의 행동만큼 아이러니한 일은 없습니다. 군인들이 잔혹한 농담으로 행하는 것은 언젠가 실제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인자로 높여지시고 모든 권세를 받으실 것입니다.

28:18.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서 기꺼이 백성을 얻을 것입니다. 25:31에 따르면, 세상 끝에 그는 왕으로 돌아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겉보기와 같지 않으며, 때로는 겉보기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암시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내용은 50페이지에 있는 이 강의 개요 바로 다음 페이지의 보충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용과 암시에서 시편 22편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이 강의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들여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반유대주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가장 악랄하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27-31절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유대인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존재로, 이방인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마태의 신학 해석에서 발견되는 오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방인의 예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1985년 저서에서 27장 44절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완전히 배척당하셨다고 언급하며 지나친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 나오는 조롱하는 자들이 모두 유대인은 아니며(27:27-31), 27장 55-57절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이 조롱하는 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마태가 유대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이방인에 대해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받아서 안 됩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처형 방식일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적어도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다른 고대 작가들처럼 이 구절에 대해 언급합니다. 로마인들은 노예, 악명 높은 범죄자, 반란군을 정치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를 감히 어지럽히는 자들을 끔찍한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정복당한 민족에 대한 로마의 지배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방법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포위 공격 당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관행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십자가 처형에는 종종 긴 못을 희생자의 발목을 통해 십자가의 수직 기둥에 박고, 희생자의 뺨은 손이나 손목을 통해 십자가의 수평 기둥에 못을 박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요한복음 20장 25절, 골로새서 2장 14절을 참고하십시오.

질식, 즉 호흡 곤란 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 결국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팔로 매달리면 숨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과정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형 집행인들은 과정을 서두르기 위해 희생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지만, 요한복음 19장 31-33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십자가 처형 전 채찍질과 못에 의한 상처로 인한 탈수와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는 예수님의 배척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당파, 구경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혁명가들이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십자가 처형은 예수를 메시아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폭로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이 로마의 압제적인 멍에를 벗겨줄 것으로 기대하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와 요한은 로마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유대인 개개인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가치관은 12장 14-21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이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갈등에서 물러나시며, 병 고침에 대해

침묵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는 종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성령을 받은 자, 거리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선포하는 자,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는 자로 묘사하는 이사야 42장 1-4절의 성취입니다.

왕국은 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26:52), 한 번에 한 회개하는 제자에 의해 건설됩니다. 이 메시아적 모델에서 정의는 군사적 용맹이 아니라 개인의 회개와 타인에 대한 겸손한 봉사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계는 정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받는 것 외에도, 그러한 가치들이 실천되는 데 필요한 구속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1:21).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심으로써(20:28). 이 대속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 희생하는 것을 수반합니다(26:28). 토라는 나무에 달린 자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신명기 21:22, 23). 이사야 53장 3-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신약 저자들은 대속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이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백성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셨기에, 백성은 스스로 그 저주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10장 39절, 13장 29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등의 구절에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데, 두 구절 모두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와 그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 지심으로써 그들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24-26, 고린도전서 1:23-24, 고린도후서 5:21, 디모테전서 2:6과 같은 구절들을 살펴보세요. 바울은 십자가 신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담과 연합하여 죄의 옛 삶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함으로써 예수님과 생생하게 동일시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5:12-6:11, 고린도전서 15:20-22, 갈라디아서 2:20-6:14, 에베소서 2:1-6, 4:22-24, 골로새서 2:8-15, 3:1-4와 같은 구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적 효과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마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 강조한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7-12절, 에베소서 2장 11-22절, 골로새서 3장 9-11절을 살펴보세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마태의 기록(27절 45-5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태복음 전체가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은 26-28절에 나오는 수난 이야기의 서론이며, 그 수난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죽음을 서술하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십자가 처형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는 사건 자체의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아이러니와 구약의 환상으로 가득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고, 바위를 쪼개는 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자연 그 자체가 이 사건의 불길한 시대적 중요성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괴롭히는 장면은 27:46에서 끝나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절망적인 외침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말씀으로 어둠을 꿰뚫습니다. 해그너에 따르면, 1장 23절, 3장 17절, 11장 27절, 16장 16절, 17장 5절과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하게 구별되었던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수 있었는지는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중 하나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 상실이 아니라,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느끼신 버림받음은 일시적일 뿐이며, 곧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7장 47-49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버림받음에 대한 외침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일어난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조롱해 왔지만, 이제는 엘리야가 기적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구해 줄 것을 반쯤 진지하게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고난의 잔을 다 마셔야 합니다 .

그의 죽음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물로서 그의 피가 흘려진 희생과 같습니다. 27장 27-49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올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추측은 더욱 교묘한 형태의 조롱에 불과합니다. 27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따라가던 중에 일어난 지진은 성전 휘장과 바위까지 찢어지게 하여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임을 증명하며, 그분이 참으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임을 보여줍니다(12:6).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린 것은 예수님의 곧 있을 부활을 통해 보장된 최후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로 묘사한 고린도전서 15장 20-23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십시오 .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자들이 비록 잠시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음을 동정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죽음 방식과 그 결과를 목격하면서 일종의 신자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마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은 자신들이 받은 빛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더 많은 증거에 대한 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무리가 있었는데, 고통과 조롱에 대한 공포와 그에 따른 지진에 대한 경외심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27장 55절과 56절에 언급된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마침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에서 이 충실한 여인들의 비중이 두드러지는 것과 제자들이 부끄러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에 만연했던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에는 우리 주님의 장례가 나옵니다 .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묘사하고 있으며(27장 57-61절),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할까 봐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27장 62-66절). 두 부분 모두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빌라도가 그 요청을 들어주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마태복음 28장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 경비가 부활과 경비병들의 도주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겪으 신 온갖 학대를 생각하면, 그분의 장례 방식은 적어도 놀랍습니다. 그분은 해가 진 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치욕을 피하셨는데, 그 해가 진 후 무교절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화를 돋우는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개입하여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를 제대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는 26장 6-13절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은 이후 예수님이 받은 가장 따뜻한 대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거짓 부활 주장으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두려움은 비이성적이며, 심지어 편집증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흠어져 두려워하며 시신을 흠칠 위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제자들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한 실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된 부활을 이루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듯합니다.

어떤 경우든 부활 후의 현현은 28장 9절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시신 도적설을 반박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발생한 음모는 불신앙이 스스로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최악의 두려움이 어떻게 확증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는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임수는, 인용하자면, 첫 번째 속임수보다 확실히 더 나쁘게 드러납니다. 속임수가 아니었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요약하고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고 돌을 봉인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매장되십니다. 분명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적들의 걸보기에 승리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마태는 이 장에서 두 가지 대조적인 주제를 병행하여 전개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냉혹하고 잔인하게 조롱하며 대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인정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의 놀라운 완강함은 계속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로마 관리들의 조롱 속에서도 거둑거둑 무죄를 입증받으십니다. 유다는 뉘우치며 예수님의 무죄를 시인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27장 4절에서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조차도 유대 지도자들의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와 함께 27장 18절과 19절,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을 무죄로 간주합니다.

아버지의 섭리는 해가 어두워지면서 저질러진 잔혹 행위에 걸맞은 기상 현상을 제공하고 27:51-53에서 일종의 정당화를 제공합니다. 로마 군인 분견대는 27:54에서 이러한 현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유대 지도자들보다 더 예리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신성한 아들됨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들의 진실한 고백은 27:40과 43에 나오는 군중과 유대 지도자들의 조롱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견할 길을 열어주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세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고백해야 했습니다.